

## 새로운 시작의 두려움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함께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는 마치 동굴속을 처음 탐험하는 것과도 같은 느낌이다.

현대사회는 과거 중세시대의 1세기 동안의 변화가 수년 안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변화의 진폭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서 이에 적용하기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적용하여 어려운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결하였을 때에는 뿌듯한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초보자와 프로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또한 초보자와 입문조차 하지 않은 사람과는 더욱 큰 차이가 있다.

비록 어렵지만 어떤 분야이든 관심을 가지고 입문함으로써 절반은 이룬 것이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려운 행로를 통하여 경험을 축적해 나가므로서 프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인재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자신의 기술 한가지 이상을 닦아 스스로 인재가 되라”고 가르친 바와 같이 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로 매진할 때이다.

전문가 여러 사람이 모인 집합체는 어떤 어려운 시기에 도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한 면에서 현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인 양성 계획은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화협인 전부가 특정 분야에 있어 전문인이 되어 새로운 지식습득, 실무에 적용되는 업무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영학에 “전파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사람을 제 1종 인간으로부터 제 4종 인간까지로 나누고 있다.

제 1종 인간은 항상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그 변화에 도전하는 인간유형이요,

제 2종 인간은 창의력을 구사하되 많은 사람이 그에 따를 것이라는 주도면밀한 판단끝에 변화를 추구하는 유형이요,

제 3종 인간은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에 따랐을 때에야 그에 따르는 추종자요,

제 4종 인간은 끝내 새것을 취하지 않는 보수주의자이다.

현대인은 대부분 제 3종 인간에 속하며, 오늘날의 셀러리맨도 직급이나 직능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제 3종 인간이다.

주체적이고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자아를 타율이나 보편 속에 매몰시킨 채 모나지 않게 또, 실패나 위험을 극소화시키며 하루 하루를 살아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아이디어나 경영 아이디어를 비롯, 제품관리를 하는데 이르기까지 남의 나라에서 또, 남의 회사에서 시행착오를 거친 것만을 모방하려 할 뿐 위험이 따른 독창적 모험을 기피하고 있다.

우리 협회도 더이상 제 3종적 인간관을 탈피하지 못하면 이제 협회나 개인의 성공은 기대할 수 없으며 더욱이 국제화 사회에서의 발전인자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

“자기나름”으로 달라져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을 찾는다면 제 3종 인간에서 제 2종 인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작의 두려움은 잠깐동안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는가.㉞